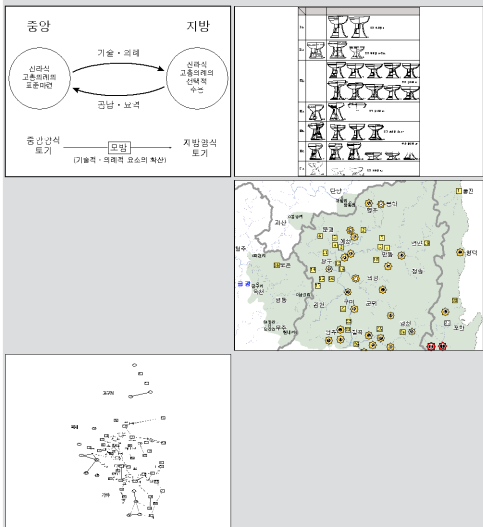




마립간기 신라의 영역과 지방지배

Territory and Local Governance of Silla during the Maripgan Period

고상혁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특별연구원

- I. 머리말
- II. 신라양식 토기의 개념
- III. 신라의 영역
- IV. 신라의 지방조직
- V. 맺음말

국문요약

신라양식 토기는 신라국가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고고학적 지표로, 그 지속 분포 범위는 곧 신라의 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확인되는 마립간기 신라의 서·북 경계는 창원-창녕-대구-성주-무주-영동-옥천-청원-괴산-단양-정선-양양을 잇는 선으로 파악되며, 동·남쪽은 바다가 자연 경계를 이룬다.

이 영역 안에서 확인되는 고총은 중앙과 긴밀한 정치적 관계를 맺은 지방 정치체 수장의 상징적 기념물로, 일정한 규율 아래 축조되었다. 특히 직경 20m 이상의 고총은 최고급 위신제가 부장된 점에서 당시 행정 단위인 성·촌을 반영하는 고고학적 지표로 볼 수 있다. 그 수가 50여 개소로 파악되어 중국 『양서』 신라전에 기록된 “52읍록”과 대체로 부합한다. 이는 6세기 초 신라 지방행정 체계의 실상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고총은 주로 낙동강 유역과 동해안을 따라 분포하며, 소백산맥 이북 지역, 동해안 북부, 그리고 금관가야 중심지였던 김해 일대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고총이 축조된 지역에서는 지방관 파견, 외위 수여, 역역동원 등 상당한 수준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에 반해, 고총이 없는 지역에서는 다양한 통제 장치를 통한 낮은 수준의 간접지배가 시행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신라의 지방통치가 지역별 조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운영되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신라양식 토기와 고총 분포를 통해 마립간기 신라의 영역과 지방지배 구조를 파악할 수 있으며, 특히 고총의 수와 분포는 당시 신라의 지방행정 체계와 차등적 통치 방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주제어 : 신라, 마립간, 토기, 고총, 지방조직

I . 머리말

마립간기에 이르면 진한 소국 중 하나에 불과하였던 사로는 주변 소국을 아우르는 광역정치체인 신라로 발전한다. 이 때문에 ‘신라’라는 명칭은 구성원 간의 상하관계는 물론 영토의식의 형성, 간접지배를 기반으로 한 중앙과 지방 간 관계의 제도화를 내포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주보돈 1996). 고고학적으로도 이 때를 전후하여 신라국가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기념물과 상징물이 등장하는데, 신라양식 토기와 착장장신구, 그리고 고총·성과 같은 건축물이 대표적이다(이희준 2007; 김용성 2015). 이러한 물질 문화의 출현과 분포는 신라의 성장 과정을 반영하며, 그 지속 분포 범위는 곧 신라의 영역을 보여주는 지표(김용성 2016)로 인정된다.

그러나 착장장신구는 신분을 상징하는 위신재로서 대형 고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영역을 세밀하게 추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묘제 역시 적석목곽묘가 신라 중앙 지배층을 강하게 반영하는 데 그치며, 석곽묘와 같이 신라와 가야가 공유하는 묘제는 상호 구분이 쉽지 않다. 고총과 성 또한 주변 국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 외형만으로는 그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와 달리 토기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 물질 자료로서 신라의 영역을 파악하는데 유효하다. 신라에서 토기는 매장 의례에(이성주 2020: 159) 사용되는 예기로 제작되었으며(고상혁 2024: 1), 국가 차원에서 토기 제작과 사용 방식을 일정하게 규범화함으로써 구성원 간 정체성을 공유하려는 의도가 반영(李元太 2022: 201)된 것으로 이해된다. 비록 부장량에는 차이가 있으나 다양한 규모의 무덤에 널리 부장되었고, 형식 변화에 따른 세밀한 편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공간적 범위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따라서 신라양식 토기의 분포와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면 신라의 강역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글은 신라의 지방조직을 고찰하고자 한다. 4세기 중엽은 사로가 고대왕권국가로 성장한 시기이며, 6세기 중엽에는 율령반포를 통해 지방통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문헌 기록에 따르면 성·촌을 기본 단위로 하는 지방통치체제는 이미 마립간기에 시행되고 있었으나(이수훈 2016: 104), 이에 대한 고고학적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토기를 기준으로 신라의 강역을 설정하고, 사회 집단의 기념물인 고총(이성주 2012; 김대환 2012)을 지방 거점의 지표로 삼아 토기의 확산과정과 그에 따른 연결망 형성을 분석함으로써 마립간기 신라 지방조직의 실체를 복원하고자 한다.

Ⅱ . 신라양식 토기의 개념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신라양식 토기가 지닌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점에서 신라양식 토기가 신라 영역 추적의 근거가 되는지 그와 관련된 신라양식 토기 전반의 이해를 높여보고자 한다.

신라양식 토기의 대표 기종은 상하교호하는 장방형 투창을 지닌 이단투창고배와 직선적인 경부를 가진 장경호이며, 이러한 기종을 중심으로 구성된 일련의 토기군을 신라양식 토기라 한다. 그 존속 시기는 대체로 4세기 중엽부터 6세기 전엽에 이르며(최병현 2022), 이 기간에 토기 양식은 몇 차례 중요한 변화를 겪고, 이는 국가 전반의 구조적 변화와도 궤를 같이한다.

특히 신라양식 토기가 유행하는 시기에는 적석목곽분이라는 새로운 묘제가 출현하고, 대형 봉토를 갖춘 고총이 축조되기 시작하였다. 더불어 수지형 관으로 대표되는 신라 특유의 금공장신구가 성행하였으며, 등자를 포함한 기승용 마구의 등장과 부장은 내세 인식의 변화를 보여준다.¹⁾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북방계 고분 문화의 유입과 맞물리며, 신라 사회가 새로운 정치·의례 질서를 형성해가는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더불어 월성으로 대표되는 궁성이 축조되고, 김씨의 왕위세습이 정립되며, ‘마립간’이라는 왕호가 사용된 시기와의 맞물린다는 점에서 신라양식 토기는 마립간기 신라국가의 성립과 위상 변화를 반영하는 물질 자료로 이해된다. 이는 신라양식 토기가 단순한 고고학적 양식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헌에 나타난 역사적 사건들과도 대응하여 국가의 정치 제도 변동과 긴밀히 연동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신라양식 토기는 과거 낙동강 동안양식으로 지칭되기도 하였으나, 실제 분포는 영남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낙동강 이서지역, 충청 내륙, 동해안 일대까지 점차 확산한다. 이러한 확산양상은 신라국가의 영역 확대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문헌 기록에 나타난 신라 강역의 변동과 토기 분포가 대체로 일치한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이희준 2007). 즉, 신라양식 토기의 지속 분포 범위는 곧 신라의 영역을 반영하는 지표이다(김용성 2016: 10). 따라서 신라양식 토기는 한반도 동남부의 유력 정치체였던 신라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물질 자료로서, 단순한 토기

1) 마구에서는 편비가 나타나고, 등자, 안고도 이 시점부터 나타난다. 이러한 기승문화의 출현은 내세로 향하는 수단이 수레에서 직접 말에 탑승하는 기승으로 변화하였음을 말해준다(고상혁 2024: 18).

의 양식 변화를 넘어 신라국가의 형성 및 발전과 관련된 역사적 서사를 반영한다.

삼국시대는 한반도 역사상 대형무덤이 가장 활발하게 축조되는 시기로, 신라의 중심지인 경주에는 적석목곽을 묘제로 하는 거대한 봉토를 갖춘 고총이 조성되었다. 당시 신라에서는 무덤에 다량의 토기를 부장하는 후장(厚葬)이 성행하였으며, 무덤에서 확인되는 부장용 토기는 기종이 다양하고 기형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성형과 장식기법 또한 훨씬 정교하게 이루어졌다(이성주 2020: 159). 더욱이 이러한 토기는 고화도에서 환원염으로 소성되어 일상 용기로 사용하기에는 필요 이상으로 견고하며, 표면의 색조와 질감 역시 금속기나 자기와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신라양식 토기는 실용적 용도보다는 매장 의례를 위해 제작된 예기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신라양식 토기의 기종 구성과 기형적 특징은 중앙 의례의 법식과 절차에 맞추어 규정되었으며(이희준 2007), 이 과정에서 선호된 일부 기종은 왕도 외곽의 생산시설에서 대량으로 제작되었다. 반복적인 제작 공정을 거치며 높은 유사성이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경주 일대에서 확인되는 일정한 규격과 형태를 지닌 토기군은 신라의 예법에 부합하도록 표준화된 ‘중앙양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신라양식 토기는 이러한 중앙양식과 더불어 유사양식 및 변형양식이 병존한다. 중앙양식은 경주에서 직접 생산되었거나 동일한 생산체계를 공유한 공방에서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유사·변형양식은 중앙양식에 대한 모방의 정도를 달리한 채 지방에서 생산된 토기로 이해된다. 이는 토기가 원거리 유통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지방 사회가 중앙으로부터 토기를 공급받기보다는 자체 생산을 선택한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신라 중앙 토기에 대한 모방행위는 단순한 양식 수용을 넘어 신라에 대한 정치적 복속을 표상하는 성격을 지니며, 각 지방 수장층이 중앙의 고총 의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확산한 것으로 이해된다(李盛周 2009). 신라 중앙은 지방 유력자의 정치·경제적 권한을 일정부분 인정해주는 대신 촌간으로 불린 지방의 유력자는²⁾ 중앙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복속의례³⁾를 행하는 수준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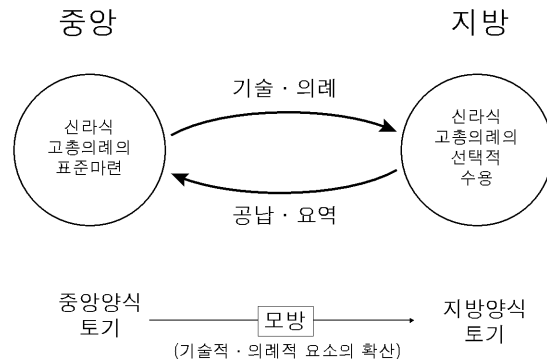
2) 지방의 유력자들은 촌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간을 지급받았으며, 초기에 그들은 ‘촌간村干’과 같은 형식으로 불리었다. 촌간이라 칭해진 유력자는 중앙정부에 대해 충성을 맹세하고 반대급부로서 당해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았다(주보돈 2016: 190).

3) 복속의례에는 지역 특산물 납부 외에도 여러 형식과 절차가 있었다. 피복속 정치체의 각급 수장들이 신라 국왕에게 정기적으로 정치체 내부의 사안을 보고하는 일, 제의에 참석하는 일, 그리고 하사품과 정치·군사상의 지침을 수령해오는 일 등이다(김창석 2016: 207). 따라서 신라 중앙정부가 복속지로부터 공납을 받은 것은 수취입과 동시에 복속의례의 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지배권을 인정받는 상호 관계를 형성하였다(주보돈 2016: 190). 이 과정에서 고총 및 성곽의 축조 기술, 금공 장신구와 토기 생산기술 등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지방 수장이 중앙으로 상수(上收)하거나(주보돈 2007; 이희준 2007), 감찰 또는 군사 지휘의 목적하에 중앙에서 지방으로 관리가 파견되기도 하며 중앙과 지방 사이에 인적 교류가 이루어졌다. 이는 신라가 지방에 대한 통치력을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통치체제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의 일환으로 이해되지만, 궁극적으로 중앙양식 토기가 지방 사회로 확산되는 매개가 되었다.

한편, 지방에서는 신라식 고총 의례의 일부 요소를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나름의 독자적 지역성을 유지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앙의 토기 생산기술과 제의 체계가 지방으로 전파되었으며, 이러한 확산양상은 신라양식 토기의 분포 원리로 설명될 수 있다(그림 1). 즉, 신라양식 토기의 확산은 신라의



[그림 1] 신라양식 토기의 확산 원리 개념도(고상혁 2024: 20)

중앙과 지방 사이에 이루어진 복속의례가 매커니즘으로 작동한 결과인 것이다.

또한 신라양식 토기는 복수의 생산시설에서 제작되었으며, 지방의 토기 생산기술 역시 단일한 계보가 아니라 다양한 전통 위에서 형성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통양식 토기나 가야양식 토기의 제작 전통이 지속되기도 하였다. 그로 인해 중앙과의 양식적 유사성이 높은 지역도 존재하는가 하면, 그와 다르게 기존 제작 전통이 뚜렷하지 않은 지역도 존재한다. 이러한 생산 기반의 다양성은 신라양식 토기 내부에 필연적인 지역적 차별성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지방에서 신라양식 토기의 생산이 본격화된 이후에는 지리적 조건 또한 중앙과의 양식적 유사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로 기능하였다. 경주 인접 지역의 경우 중앙에서 유행하는 기형 정보와 제작 기술의 직접적인 교류가 활발하여 상대적으로 중앙양식에 근접한 토기가 제작되었다. 반면 중앙과의 교류가 제한된 지역에서는 기형과 기종에서 뚜렷한 차별성을 보이는 토기가 생산되었다. 대체로 동해안 지역은 중앙양식과의 유사성이 높지만, 낙동강 유역은 유사성보다는 차별성이 강조된다. 그러나 유사

양식과 변형양식 토기는 유사 정도의 차이를 가질 뿐, 기본적으로 모두 신라양식 토기의 범주 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지방양식 토기의 형성은 신라가 광역정치체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지방에 복수의 거점을 설치한 것과도 관련된다. 중앙과 동일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지방에서도 대량의 토기를 부장한 고총이 축조되었다. 또한 경주에서 확인되는 양상과 마찬가지로(고상혁 2026: 192), 지방 거점의 외곽에는 경산 옥산동 사례와 같이 고총에 부장할 대량의 토기를 생산하기 위한 요장은 물론, 연료 공급을 위한 탄요 등 각종 수공업 생산시설이 함께 조성되었다. 이는 금공품의 지방 생산 가능성(이희준 2005; 이한상 2009)과 마찬가지로, 경주를 중심으로 형성된 고차중심지 기능의 일부가 지방으로 이전된 결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이른바 ‘신라식 왕도 개발 모델’의 지방 거점 설치 과정에서의 적용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토기 생산시설은 신라식 의례 수행의 필수 요소로서 각 지방 거점에 설치되었고, 그 결과 지방 거점은 개별 지방양식 토기의 중심이자 생산 거점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방양식 토기의 출현은 고총 및 지방 거점의 존재와 높은 상관성을 가진다. 또한 복수의 생산 거점에서 제작된 토기는 지리적 조건을 고려하여 유통되었기 때문에 공간적 중복이 크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지방양식 토기는 일정한 권역 단위로 소비·분포되는 특징을 보이며, 이러한 분포권은 지방 고유의 묘제 분포와도 대체로 일치한다. 이는 곧 지방양식 토기의 공간적 분포 양상이 당시 지방의 구조적 조직 형태를 추론하는 중요한 분석 근거가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방에서의 신라양식 토기 수용은 신라 왕실의 입장에서는 의례를 통해 지방 세력의 복속 여부를 확인하는 통치적 장치였다면, 지방 수장에게는 신라 중앙과의 관계를 배경으로 삼아 현지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Ⅲ. 신라의 영역

신라양식 토기의 분포는 단속적인 사례만을 기준으로 할 때 훨씬 넓은 범위에서 확인되지만, 이를 지속이라는 관점에서 재검토하면 실제 영향권은 보다 제한된다. 본 글에서는 지면의 제약을 고려하여 국경에 해당하는 지역을 수계를 기준으로 선택적

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라양식 토기는 중앙과 지방 간에 형태적 차별성을 보이므로 중앙과의 차이가 뚜렷한 지역의 경우에는 중앙양식 토기가 동반되는 유구를 중심으로 시간적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검토 대상 기종은 가장 세밀한 편년이 가능한 이단 투창고배를 중심으로하여 필요에 따라 기타 기종도 보조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편년안은 고상혁(2024)을 참고하여 I~IV단계로 대분하며, 절대연대는 I 단계가 4세기 중엽, II 단계가 4세기 후엽~5세기 전엽, III 단계가 5세기 중엽~후엽, IV 단계가 5세기 말~6세기 전엽에 해당한다. 각 단계는 다시 2~3기의 세부 소기로 구분된다.

1. 낙동강 하류

1) 김해⁴⁾·창원⁵⁾

김해에서 가장 빠른 신라양식 토기는 우계리 2호분에서 확인된다. 배신부에 2조의 돌대가 확인되는 사단각고배와 삼단각고배가 동반하여 출토되어 I B단계에 해당한다. 김해 우계리 2호분에서 출토된 사단각고배는 배신부에 2조의 돌대가 간격을 두고 배치된 것이 특징으로 경주에서 이러한 돌대는 경주 월성로 가-5호분에서만 확인된다. 또한 대각 투창의 구획방식이 돌대가 아닌 침선이라는 점에서 현지에서 생산된 모방품으로 추정된다. 김해 망덕리 II-89호 목곽묘의 이단각고배(그림 2-3)는 II A단계에 해당하는데 형태적 특징에 있어 중앙양식과의 차별성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이때부터는 경주 중앙의 토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수량이 많지는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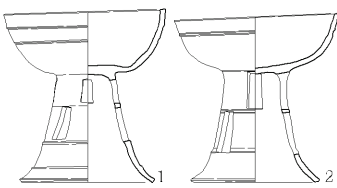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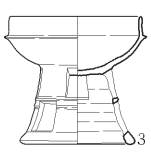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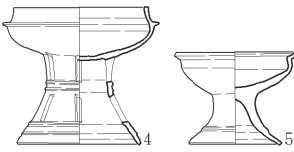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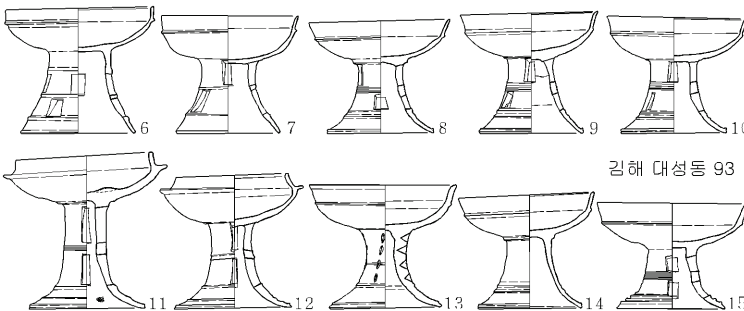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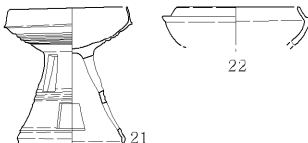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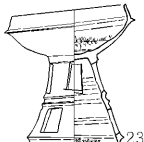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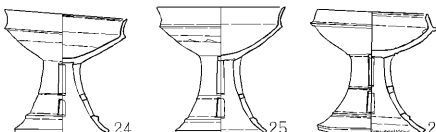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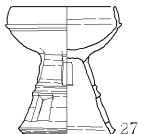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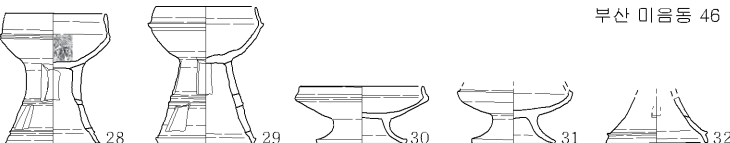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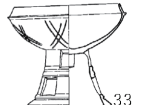
김해에서 본격적으로 신라양식 토기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II B단계에 들어서이다. 수량 자체도 증가하며, 창원에서도 이때부터 신라양식 토기가 출현한다. 이때까지는 아라가야양식 토기의 비중이 높고 소가야양식 토기의 비중도 높게 나타나는데 III B단계가 되면 신라양식 토기 그중에서도 창녕양식 토기의 유입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김주용 2007: 80).⁶⁾

김해·창원에서 한가지 특징적인 현상은 III C단계부터 신라양식 토기의 비중이

4) 현재 행정구역은 부산이지만 낙동강 서쪽에 위치하는 미읍동·생곡동은 김해로 분류하였다.

5) 마산만 동쪽 일대는 아라가야양식 토기의 권역에 해당하므로 이 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6) 도계동:함안계 57%, 신라·창녕계 22%, 소가야계 3%, 천선동:토착계 36%, 신라·창녕계 36%, 함안계·소가야계 14%

	경주	김해
I B		 김해 우계리 2
II A		 김해 망덕리 II-쪽89
II B		 김해 대성동 93
III A		 김해 대성동 90
III B		 김해 퇴래리 산8 27
III C		 부산 미음동 46
IV A		 김해 예안리 54

[그림 2] 김해토기(1/10)

감소한다는 점이다. 대신 창원을 중심으로 대가야양식 토기가 증가하는데 실제로 창원 중동에서는 대가야양식 토기를 생산한 토기가마가 조사되기도 하였다. 이와 동시에 김해에서는 김해양식 토기로 분류되는 단각의 고배들이 제작되기 시작한다(그림 2-30~32, 34·35). 동시대 신라양식 토기도 단각화되는 경향이 있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고 굽에 가까운 단각은 대가야양식 고배의 특징이지만 그보다도 급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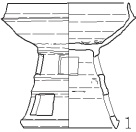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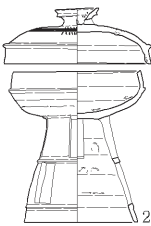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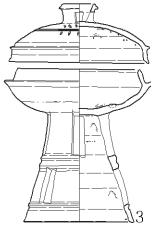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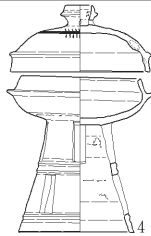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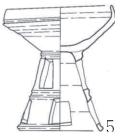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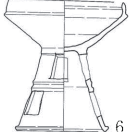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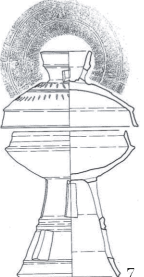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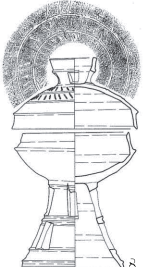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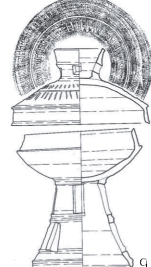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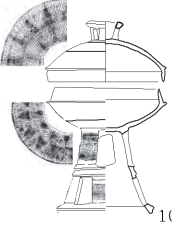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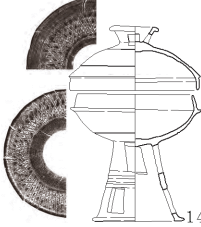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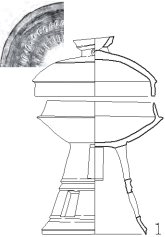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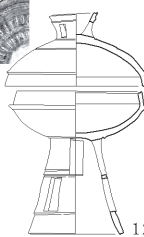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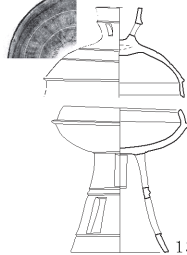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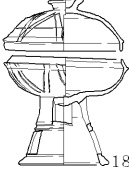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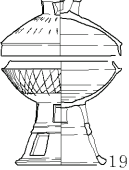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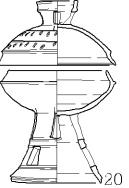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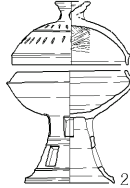
즉 김해에서는 4세기 후엽부터 신라양식 토기가 일부 모방 생산되었는데 그러다 4세기 말, 적어도 5세기 전엽이되면 김해의 중심인 대성동 고분군에 대형분의 축조가 단절됨과 동시에 신라양식 토기의 수량이 급증한다. 창원에서도 이때부터 신라양식 토기가 출현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아라가야와 소가야토기의 유입은 중단되지 않는다.

2) 창녕

창녕은 지역색이 강한 토기가 생산된 곳으로 가장 이른 시기 중앙양식와 창녕양식 이단투창고배가 동반되는 무덤은 특이하게도 포항에 존재한다. 포항 남성리 I-34호분에서는 내경하는 구연에 폭이 넓은 이단각고배가 출토되었는데(그림 3-1)ⅢA단계로 설정된다. 동반되는 창녕양식 고배는 대각이 중형이며 뚜껑받이턱이 짧은 것(그림 3-2), 대각이 제형이고 뚜껑받이턱이 길게 돌출된 것이 확인된다(그림 3-3·4). 동반되는 개는 높이가 낮고 투공이나 투창이 없는 것(그림 3-2), 대각축소형꼭지(그림 3-3), 타원형 투공이 있고 단부가 강조된 것(그림 3-4)이 확인된다. 배신은 전체적으로 낮고 다치구를 이용한 점열문이 확인된다. 이러한 기형은 창녕 동리 1호 석곽묘⁷⁾와 대비되는데 상하일렬투창 통형고배와 동반되고 있어 창녕양식 토기가 가야양식에서 신라양식으로 변화하는 전환기로 생각된다. 이때부터 창녕에서 가야양식 토기는 사실상 사라지고 신라양식 토기로 전환된다.

창녕 교동 1호분의 이단각고배는 배신이 직선적이고 각단이 작게 제작되어(그림 3-5·6) 중앙양식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각기부에 돌대가 있는 폭이 좁은 이단각고배라는 점에서 ⅢB단계로 설정할 수 있다. 동반되는 고배는 제형의 삼단각, 낮은 배신, 뚜껑이 두드러지고 구연단이 각진 것이다. 무엇보다 돌대로 구획된 개의 꼭지가 가장 두드러지는데, 이러한 점이 창녕양식 고배를 규정하는 주요 특징이다.

7) 가야양식에서 신라양식으로의 전환은 창녕 동리 5호 석곽묘가 거론(김두철 2014: 178)되며, 창녕 동리 1호 석곽묘는 그 직후 단계(최병현 2022: 419)로 설정되기도 한다.

	경주	창녕		
ⅢA	포항 남성리 1-34  1	 2	 3	 4
ⅢB	창녕 교동 1  5  6	 7	 8	 9
ⅢC	창녕 교동 88  10 창녕 교동 주차장 조성부지  14	 11	 12	 13
ⅣA	 18  19	 20	 21	창녕 계성리(두) 2

[그림 3] 창녕토기(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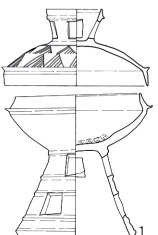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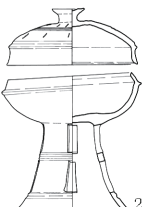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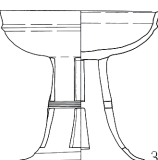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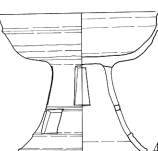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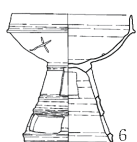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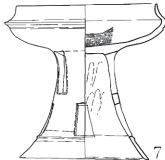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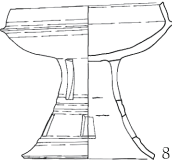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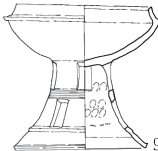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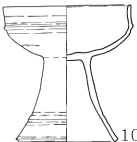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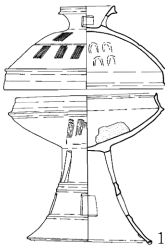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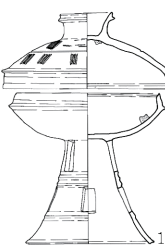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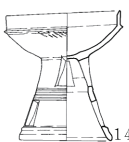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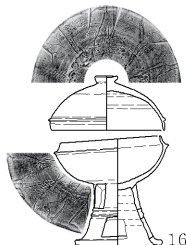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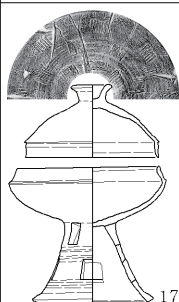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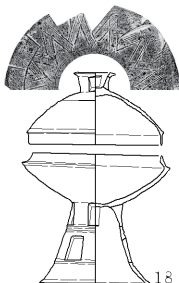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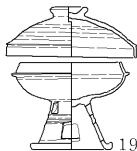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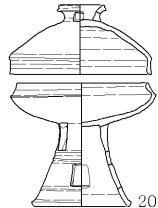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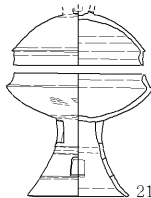
2. 낙동강 중류

1) 대구

대구 본리리 I-1호 석곽묘에서는 내경하는 구연부, 중앙의 벌어진 돌대에 의해 사단으로 구획된 고배(그림 4-1)가 확인된다. 이러한 사단각고배는 I 단계의 사단각고배와 혼동될 수 있으나 이것이 대각도치형꼭지가 부착되고 삼각집선문이 시문된 개와 결합하는 양상을 통해 IIIA단계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형태는 경산에서 다수 확인되어 경산산일 가능성이 크다.

동반되는 고배 중에는 낮은 배신부에 외반하는 구연을 가진 나팔형 삼단각고배(그림 4-3·4)와 내경하며 돌대형 뚜껑받이턱을 가진 것(그림 4-2), 'C'자형으로 곡선을 그리며 크게 내경하는 구연과 뚜껑받이턱을 가진(그림 4-2) 유개식도 확인된다. 투창은 세장방형이 상하일렬로 배치된 것(그림 4-2·3·5)과 상단은 길고 하단은 짧은 것이 교호하여 배치된 것(그림 4-4)이 확인된다. 대각 중앙의 구획은 다조침선(그림 4-2·3)과 1조 침선(그림 4-4·5)이 확인된다. 이러한 특징들은 동시기 낙동강 하류와 유사한데 높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폭이 넓은 대각에 상하일렬투창이 배치된 고배는 IIIA단계 이전 대구 고배의 주요 특징이다.

III단계에 대구 문산리 3-5호분에서 출토된 기부에 돌대가 있고, 대각은 제형이며, 단면 'V'자형 각단을 가진 이단각고배(그림 4-6)는 중앙양식으로 추정되나 횡으로 긴 하단투창은 다소 이질적이다. 이와 동반되는 고배를 보았을 때 대구에서는 구연단이 뾰족하고, 구연부가 'C'자형으로 크게 내경하는 것(그림 4-7), 직선적이며 구연단이 평평한 것(그림 4-8)이 확인된다. 구연단은 편평하지만, 길이가 짧고 뚜껑받이턱으로의 연결이 완만하여 'C'자형으로 보이는 것(그림 4-9)도 확인된다. 배신은 반타원형으로 중앙과의 차별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대각 중앙의 돌대는 구획이 없는 것(그림 4-7), 이조연접돌대(그림 4-8), 다조 침선(그림 4-9)이 확인된다. 투창은 대체로 상하의 높이가 유사하고 세장방형을 이루지만 장방형의 것(그림 4-9)들도 확인된다. 'C'자형으로 곡선을 이르며 크게 내경하는 구연과 길게 돌출된 뚜껑받이턱과 나팔형 대각은 IC단계에 유행한 것이지만 대각의 폭이 좁다는 점은 IIA단계의 요소이다. 이러한 지역성은 대구양식의 큰 특징으로 이후 지속된다.

	경주	대구				
ⅢA		대구 본리리 1-1석				
						
ⅢB		대구 운산리 3-5				
						
ⅢC		대구 운산리 1				
						
ⅣA		대구 운양리 14-1				
						
ⅣB		대구 운양리 111				
						

[그림 4] 대구토기(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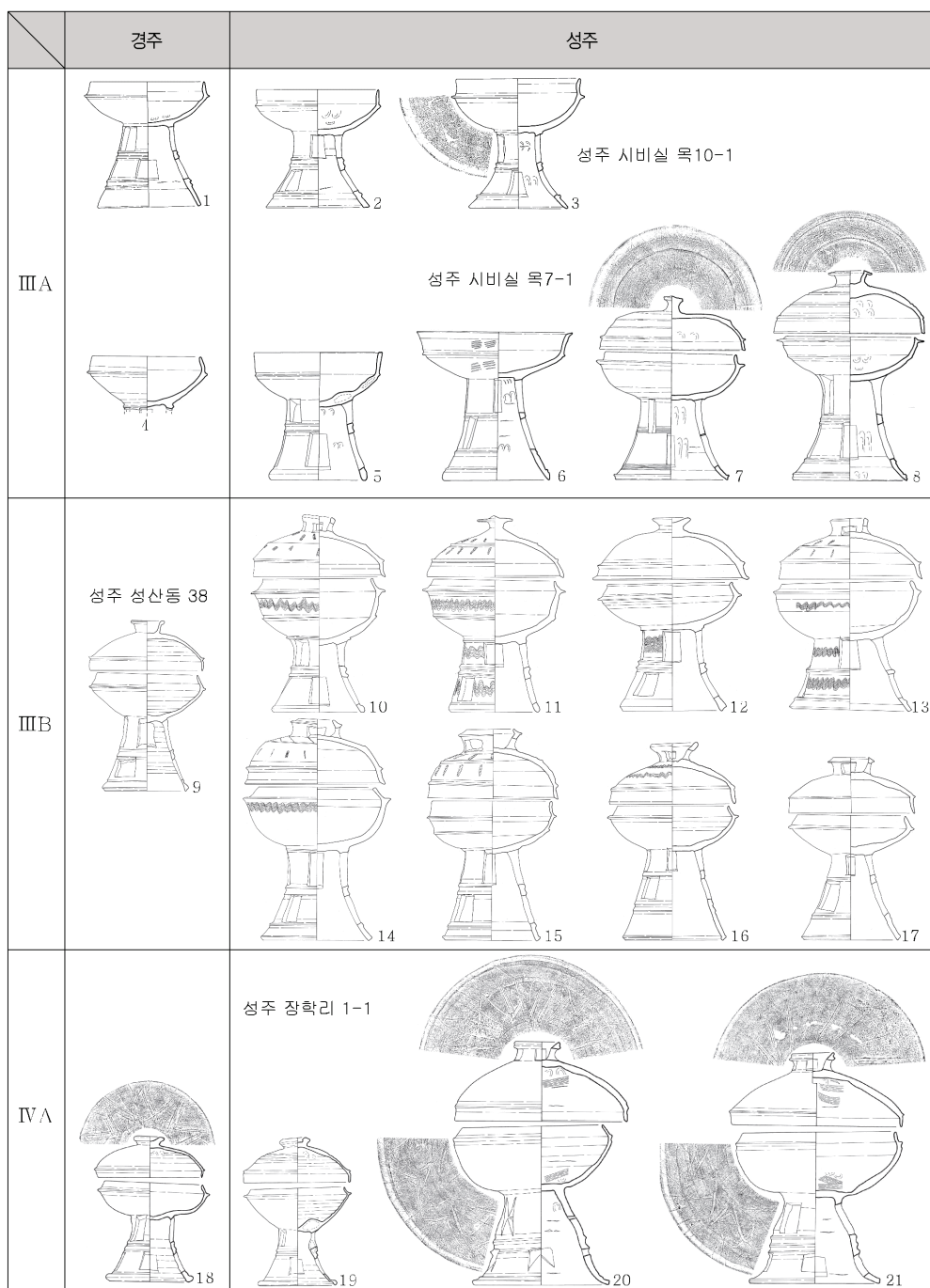
2) 성주

성주에서는 성주 시비실 1-1, 8-1, 24호 목곽묘가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성주 시비실 8-1호 목곽묘에서는 유개식 대부장경호가 확인되어 ⅡB단계 이전으로 소급될 수 없으며, 성주 시비실 24호 목곽묘는 대부장경호가 출토되어 ⅡA단계 이전으로 소급될 수 없다. 무엇보다 1-1·8-1호 목곽묘는 대각축소형꼭지가 부착된 개가 출토되어 ⅢA단계 이전으로 소급될 수 없다. 24호분과 같이 낮고 투창이 없는 굽 형태의 꼭지가 부착된 개가 최근 경주 황남동 120호분 하층 1호 목곽묘에서 확인되었는데 이 무덤은 ⅡB단계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성주의 신라양식 토기는 ⅡB단계에서 ⅢA단계로 전환되는 시점에 출현하였다.

성주에서 직접 비교가 가능한 중앙양식이 확인되는 것은 성주 시비실 10-1호 목곽묘이다. 이 무덤에서 출토된 삼단각고배 중 1점은 내경하는 구연, 돌대형 뚜껑받이턱 폭이 넓은 제형 대각(그림 5-1)으로 인해 ⅢA단계로 편년할 수 있다. 이와 동반되는 것은 나팔상의 대각을 한 삼단각으로 1점은 직립하는 대각에 돌대형 뚜껑받이턱(그림 5-2)이고, 1점은 'C'자형 구연에 길게 돌출된 구연을 가지고 있다(그림 5-3).

ⅢA단계에 확인되는 성주지역 토기는 대구, 의성, 구미에서 보이는 특징이 혼재되어 있으며 독자적인 특징을 찾을 수 없다. 성주 시비실 7-1호 목곽묘에서는 비록 대각이 훼손되기는 하였으나 내경하는 구연, 각기부에 돌대가 있는 고배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구연 형태로 인해 성주양식 토기와 구분의 명확하다. 이러한 특징은 비교적 단계 추정이 명확한데 각기부의 폭으로 보아 ⅢA단계에 해당한다(그림 5-4).

성주양식 토기의 지역색이 두드러지는 시점은 성주 성산동 38호분으로 대표되는 ⅢB단계부터이다. 성주 성산동 38호분에서는 뾰족한 구연단이 대부분이지만 평평한 것(그림 5-14)도 확인된다. 돌출된 뚜껑받이턱과 크게 내경하는 구연의 비율이 높다. 배신부가 깊고 외면 중앙에 돌대가 있는 것 이외에 배신부가 깊지만 돌대가 없는 것(그림 5-13·14), 배신부가 얇은 것도 확인된다(그림 5-16·17). 대각은 이단각과 삼단각이 확인되는데 이·삼단각 모두 제형(그림 5-11, 13, 15, 16, 17)인 것과 대각 중앙 돌대에서 크게 벌어지는 것, 각기부 보다도 대각 중앙의 폭이 좁은 것(그림 5-10·14), 대각 상단은 수직으로 일정한 폭을 유지하다 중앙에서 벌어지는 것(그림 5-12)이 확인된다. 투창은 장방형에 상하의 폭이 일정한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단에 비해 하단의 높이가 높은 것(그림 5-16·17)도 확인된다. 대각 중위의 돌대는 이조연접된 것이 일반적이지만 1조만이 배치된 것(그림 5-13·16·17)도 다수 확인된다.



[그림 5] 성주 토기(1/10)

3. 낙동강 상류

1) 상주·문경

상주와 문경은 마한의 문물이 중심을 이루는 지역이었는데 ⅡB단계부터 신라양식 토기가 출현한다. 청리 C-33호분 출토 이단투창고배(그림 6-1·2) 중 구연 상단이 크게 각을 이루며 외반하는 것은 경주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대구 등 낙동강 중류에서 유행하는 형태이다. 특히 하단에 삼각형 투창을 배치하고 상단에 점열문을 배치하는 것은 소가야양식 토기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이다. 이와 함께 청리 C-59호분에서는 무투창고배(그림 6-4)가 확인되는데 무투창고배는 낙동강 연안에서 폭넓게 분포하지만, 낙동강 중류의 대구와 낙동강 하류의 김해·부산에서 많은 수량이 확인된다. 상주 신흥리 나-28호분의 나팔형 대각의 이단투창고배(그림 6-5)는 지방에서 형식이 지체된 사단각고배로 볼 수 있다(고상혁 2026: 200). 이들 유물은 ⅡB단계로 설정할 수 있다.

상주 현신동380-1 49호 목곽묘 출토 이단투창고배(그림 6-6)는 전형적인 중앙양식 고배로 대각이 넓어 ⅢA단계로 설정된다. 현신동 61호분(그림 6-6), 현신동 71호분 출토품(그림 6-7)은 대각의 폭이 넓고 구연부가 직립하고 구연단이 편평한 이단투창고배 중앙의 직립구연이단투창고배를 모방하여 현지에서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경주에서는 이 단계에는 직립구연이단투창고배가 생산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현신동 71호분에서 대각 중위에 다조횡집선문이 배치된 이단투창고배(그림 6-9)는 직립하는 구연과 짧고 넓은 대각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 대구의 토기로 추정된다. 이때부터는 가야양식 토기는 거의 확인되지 않고 신라양식 토기 일변으로 변화한다.

ⅢB단계가 되면 현신동 39호분 출토품과 같이 직립하거나 외경하는 구연과 대각 중위에 3조 이상의 돌대가 특징적인 의성양식 토기(그림 6-11·12)가 유입되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상주에는 다수의 의성양식 토기가 도입되는데 성동리 6호(그림 6-22~25)나 신상리 1호(그림 6-27~30)와 같이 IV단계에 이르러서도 상주에서는 중앙양식 토기 및 약간의 재지 생산 토기와 더불어 의성양식 토기가 동반되는 양상이 지속된다.

문경에서는 이른 시기 신라양식 토기가 출토되지 않아 그 양상을 명확히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신현리의 상황을 본다면 IV단계에 신라양식 토기가 출현하였는데 고묘산성의 축조 시기나 지정학적 정세를 볼 때 문경 역시 상주와 같은 시기에 신라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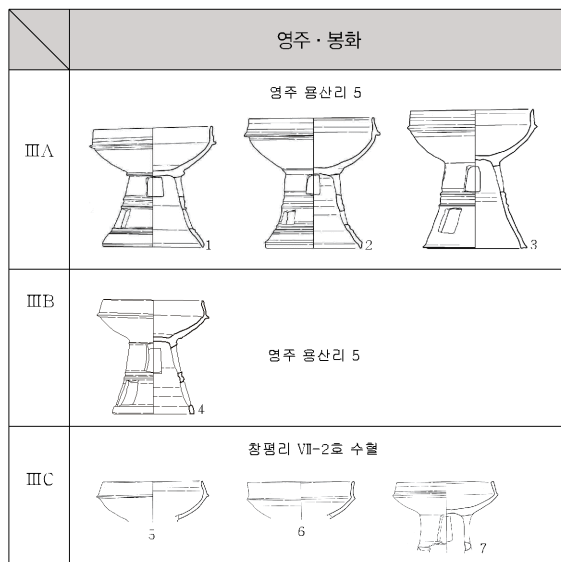
	경주	상주
II B		 청리 C-33 청리 C-59 신촌리 나-28
III A	 현신동 380-1 목49	 현신동 61 현신동 71
III B	 10	 11 현신동 39 12
III C	 13 16	 14 현신동 48 15 17 18 19 병성동 4-1 20
IV A	 21	 22 23 24 성동리 6 25
IV B	 26	 27 28 29 신상리 1 30

[그림 6] 상주토기(1/10)

토기가 도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2) 영주·봉화

영주 용산리 5호분 출토 삼단각고배(그림 7-1·2)는 각기 부에 돌대가 있고 대각의 폭은 넓지 않으며, 뚜껑받이턱은 돌대형인데 구연은 내경하고 있어 ⅢA단계로 설정할 수 있다. 하지만 구연부 끝부분이 약하게 외반하고 있어 전형의 중앙양식 토기는 아니다. 단면 삼각형의 구연부는 일부 의성에서 확인되는 특징이다. 다른 한점은 이단각고배인데(그림 7-3) 벌어진 돌대를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7] 영주·봉화 토기(1/10)

영주 태장리 5호분 출토 이단각고배(그림 7-4)는 ⅢA단계 중앙양식 토기로 볼 수 있으나 장방형에 가까운 각단부의 단면이 다소 이질적이다. 이후 태장리에서는 다수의 Ⅳ단계 무덤이 조사되었으나 이단투창고배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기종들이 모두 신라양식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과 대체로 중앙양식에 대한 모방도가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봉화에는 Ⅳ단계 이전의 고분은 확인되지 않는데 다만 봉화 창평리유적 VII-2·4호 수혈에서 출토된 고배를 통해 대략적인 양상을 확인할 뿐이다. 대각이 훼손되어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ⅢC단계로 추정된다. 이중 구연단이 편평한 것(그림 7-7)은 동시대 경주에는 확인되지 않으며, 직립하는 'C'자형 구연을 가진 고배(그림 7-6)는 의성양식 토기의 영향으로 보인다. 따라서 봉화도 중앙양식과 의성양식이 혼재하는 지역일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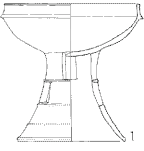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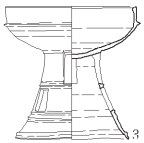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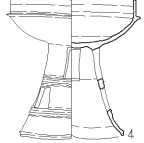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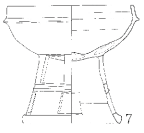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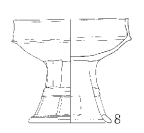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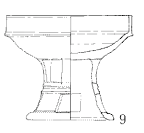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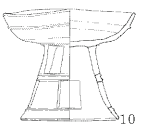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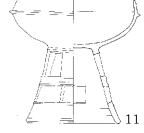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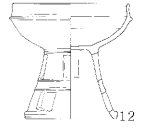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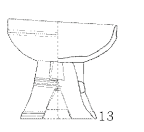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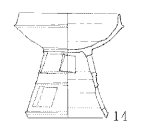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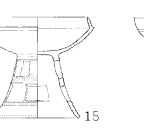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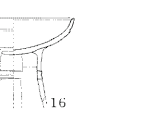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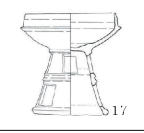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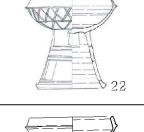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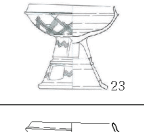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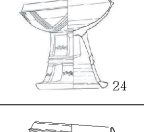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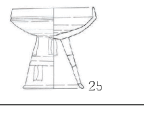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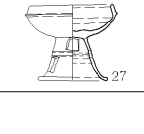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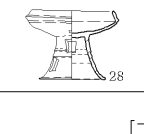
영주 반구리에서는 5세기 전엽으로 편년되는 '凸'자형 주거지가 확인되기도 하여 영주도 상주와 마찬가지로 마한 또는 예맥의 영향권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다 5세기 중엽의 이른 시점부터 신라양식 토기가 유입되는데 적어도 5세기 후엽부터

는 의성양식 토기도 유입되었다.

4. 동해안유역

1) 강릉·양양

강릉은 신라초기 말까지만 하여도 예의 고지이다. 강릉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신라양식 토기는 강릉 안현동 20호분으로 이 무덤에서 출토된 사단각고배(그림 8-1)

강릉·양양	
I B	 강릉 안현동 20
II A	     강릉 초당동 271-9 2
II B	     강릉 안현동 4
III A	     강릉 안현동 17 강릉 안현동 1
III B	     양양 원포리 5
IV A	     강릉 영진리 B-1
IV B	   양양 후포매리 1

[그림 8] 강릉·양양토기(1/10)

는 중앙과의 유사도가 높는데 IB단계에 해당한다. 그런데 강릉 안현동과 초당동에서는 신라조기의 늦은 시기로 추정되는 유물이 출토되기도 하여 이보다 이른 시점부터 신라의 문물이 유입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로도 초당동290-1유적 4호분(그림 8-2~6)에서 출토된 삼단각고배와 같이 강릉의 토기는 중앙과의 차이가 크게 확인되지 않는다. 이 시기 안현동에서는 외반하는 구연부와 다수의 세장방형 투창을 배치한 것이 특징적인 이단각고배가 수습되었는데 이는 김해지역에서 확인되는 특징이다. 이외에 IIIB단계에 해당하는 병산동 16호분에서는 외경하는 구연과 대각 중위 3조 돌대를 특징으로 하는 의성양식 토기가 출토되기도 하였다. 즉 강릉은 대부분 중앙과 차별성이 없는 토기가 확인되고 일부 김해나 의성과 관련된 토기들이 유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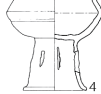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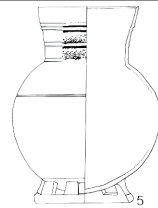
양양 남부의 현남면 일대도 신라양식 토기 분포권에 해당하는데 원포리 5호분(그림 8-22~26)으로 보아 신라의 북쪽 경계는 IIIB단계부터 이 일대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5. 금강유역

금강유역에서는 보은, 영동, 옥천, 청원에서 신라양식 토기가 확인된다. 보은 삼년산성 554호 수습품(그림 9-1)은 뚜껑받이턱이 길게 돌출되고 완만하게 구연부로 이어지는 점이 중앙양식과 다른 점이다. 이 고배에는 기부에 돌대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특징은 중앙에서는 IIIB단계 이후로 확인되지 않는다.

청원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유구는 미천리 가-5호분으로 구연부가 직립하고 구연단 단면이 사각형인 대부장경호이다. 경주에서는 III C단계에 구연부가 약하게 외경하고 구연단이 삼각형으로 변화하므로 청원 미천리 가-5호분은 III B단계에 해당한다. 청원 미천리 가-5호분의 연질 일단투창고배(그림 9-4)는 뚜껑받이턱이 명확하지 않고, 구연단이 편평하며, 각단부의 단면이 장방형의 형태를 보여 의성양식 토기와 연관되기도 하지만 연질로 소성된 고배는 낙동강 중하류지역을 중심으로 확인되는 특징이다. 금강 유역의 옥천과 무주에서도 이러한 연질제 일단투창고배가 확인되는데 이는 금강유역의 지역적 특징으로 보인다.

영동에서는 무덤에서 토기가 출토되지는 않았지만, 신라 토성이 위치하는 것으로 알려진 영동 남성리에서 시기 추정이 가능한 이단투창고배(그림 9-3)가 출토되었다.

	보은·영동·옥천·청원			
ⅢB	 보은 상년산성 554 수습			
ⅢC	 보은 상년산성 356 수습	 영동 남성리 수습	 청원 미천리 가-5	 무주 당산리 3-5
ⅣA	 보은 상년산성 794 수습	 옥천 금구리 나-4	 청원 미천리 나-2	 무주 당산리 3-10
ⅣB	 보은 상년산성 172	 옥천 금구리 나-2	 청원 미천리 나-5	 무주 대차리 7

[그림 9] 보은·영동·옥천·청원 토기(고배:1/10, 장경호:1/15)

이를 보면 장각을 유지하고 있으며 각진 각단의 형태로 보아 ⅢC단계로 추정된다.

옥천에서는 금구리 나-4호분(그림 9-5)이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데 아직 장각을 이루고 있지만 낮은 구연부와 발달한 뚜껑받이턱은 ⅣA단계의 특징이다. 옥천의 이단각고배는 중앙과의 차이가 없다. 다만 일부 일단투창고배에서 뚜껑받이턱이 밋밋하고 각단의 제작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의성양식과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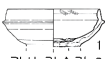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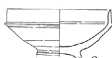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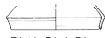
무주에서 확인되는 토기도 중앙과의 차별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대차리, 당산리(그림 9-7), 현내리에서 ⅣA단계부터 신라양식 토기가 확인된다. ⅣA단계를 세분화하여 볼 때 장각의 형태가 잔존하는 보은, 옥천, 청원이 5세기 말로 편년된다면, 단각의 변화가 두드러지는 무주는 이보다 약간 늦은 6세기 초로 설정할 수 있다.

이처럼 신라양식 토기는 5세기 중엽 보은과 청원을 시작으로 소백산맥을 넘어 금강 상류로 진출하며, 이후 5세기 후엽에는 영동, 5세기 말에는 옥천, 6세기 초에는 무주로 확산한다.

6. 남한강 유역

괴산에서는 시기 추정이 명확한 완전한 형태의 이단투창고배는 확인되지 않는다. 대각이 훼손된 검승리 6호 석곽묘의 고배(그림 10-1)는 다소 단면이 두텁게 제작된 점은 있지만 중앙과의 차별성은 확인되지 않으며, 각기부의 폭으로 보아 ⅡB단계에

설정된다. 이외에 검승리 9호 석곽묘의 개(그림 10-5)는 ⅢC단계에 해당하는데 괴산 검승리의 경우 출토유물이 빈약하지만, 검승리 4호에서는 ⅢB단계로 볼 수 있는 대부장경호와 파배가 출토되어 괴산에서 일정 기간 신라양식 토기가 지속되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점에서 괴산은 신라의 권역으로 볼 수 있는데 다만 IV단계에도 신라의 영역으로 지속되었는지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괴산·정선·단양		
ⅡB	 괴산 검승리 6		
ⅢA	 정선 아우라지 주거지 8		
ⅢB	 정선 임계리 채집	 정선 송계리 채집	
ⅢC	 괴산 검승리 9	 정선 아우라지 채집	 단양 당동리
ⅣA	 정선 임계리 4	 정선 고성리 채집	
ⅣB	 단양 하방리 4		

[그림 10] 괴산·정선·단양 토기(1/10)

정선에서는 아우라지 유적의 8호 주거지 출토 고배(그림 10-2)가 가장 이른 시기의 신라양식 토기로 추정된다. 대각의 폭으로 볼 때는 조금 더 이른 시기일 가능성도 존재하나 동반되는 대부완으로 볼 때 ⅢA로 설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선 임계리 채집품 중에는 각기부의 돌대가 있는 것(그림 10-3)이 확인되는데 각기부의 폭이 좁아 ⅢB단계에 해당한다. 임계리와 인접한 송계리에서도 구연단이 편평한 장경호(그림 10-4)가 출토되었는데 이러한 특징은 ⅢB단계까지 잔존하는 것이다. 아우라지 유적에서도 ⅢB단계이거나 그 이전으로 소급될 가능성이 있는 장경호가 다수 출토되었다. 이외에 아우라지에서는 ⅢC단계의 소형고배도 출토되었다(그림 10-6). 가장 서쪽의 고성리산성에서도 IV단계의 신라양식 토기들이 다수 확인되는데 그중 대각도치형꼭지가 부착된 개(그림 10-9)는 이전단계로 소급될 여지가 있다. 신월리에서는 고배가 출토되지 않았지만, 일부 부가구연장경호는 IV단계로 설정할 수 있다.

단양 당동리에서는 삼단각고배(그림 10-7)가 확인된다. 각기부가 가늘고 각거부는 짧으며 구연부가 짧은 것으로 보아 ⅢC단계에 해당한다. 단양 하방리 4호분 출토

이단투창고배(그림 10-10)는 단각화가 진전된 IVB단계의 이단각고배이다.

즉 남한강 상류에서는 5세기 전엽 괴산으로 신라양식 토기가 확산하였다. 이후 동해안에 인접한 정선에 5세기 중엽부터 신라양식 토기가 진출하였고, 단양에서는 5세기 후엽부터 신라양식 토기가 확인한다.

Ⅳ. 신라의 지방조직

신라 마립간기 말, 즉 6세기 전엽에 이르면 신라의 영역은 낙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광역 범위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인다. 남쪽 경계는 김해와 창원 일대로 설정되며, 북상하면 낙동강을 따라 창녕과 대구로 이어진다. 대구 이후에는 다시 낙동강을 횡단하여 성주로 확장되고, 서쪽으로는 소백산맥을 넘어 무주·영동·옥천·청원에 이르는 내륙지역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다. 이후 영역은 동쪽으로 전환되어 수계를 달리 하며 남한강 상류권으로 연결되고, 괴산·단양·정선을 거쳐 태백산맥을 횡단한 뒤 동해안의 양양 남부에까지 도달한다.

김해와 창원 지역의 정치적 성격은 5세기 전·중엽과 후엽을 기점으로 일정한 변화를 보인다. 5세기 전·중엽에는 신라문화가 강하게 반영되며 신라와의 연계성이 비교적 뚜렷하게 확인되지만, 5세기 후엽 이후에는 대가야의 영향력이 점차 강화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신라양식 토기의 출토가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으므로, 해당 지역이 곧바로 신라의 지배권에서 완전히 이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창원의 경우 대가야양식 토기의 직접적 유입이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확인되어 신라로부터의 이탈 가능성이 비교적 높지만, 김해는 여전히 신라양식 요소와 자체 토기 양식이 혼재하는 양상을 보이며 중립적 성격의 지역으로 이해될 여지가 크다. 다시 말해 김해는 외교권이나 대외 교역권(주보돈 1996: 36~37), 나아가 군사적 통제력(고상혁 2024: 252)까지는 상당 부분 제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의례적 공납 등을 통해 신라에 대한 형식적 복속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비교적 높은 자치성이 인정된 지역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추정된 신라의 경계를 기존 연구 성과와 비교해 보면, 김해·창원(조효식 2008: 165~198), 단양·괴산(김태식 2008: 7~56), 영월·평창(이수훈 2016: 39) 등의 포함 여부에서 일정한 차이가 확인된다. 다만 이러한 차이는 각 지역

의 정치적 성격과 신라의 지배 방식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김해 · 창원의 경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5세기대에 가야계 토기의 분포가 확인되지만, 이는 신라 영향권 내부에서 나타나는 지역적 자율성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단양과 괴산은 신라가 일부 영역만을 점유하여 교통 및 군사적 교두보로 활용한 지역으로 해석되며, 그 기능적 성격에 비해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덜 부각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영월과 평창은 단양과 정선을 연결하는 교통로 상에 위치하여 신라의 영향권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까지 마립간기 신라를 직접 반영하는 고고학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토기를 통해 복원된 신라의 영역을 『삼국사기』지리지의 군현과 대조해 보면, 마립간기 신라 영역 내에는 총 116개(김해 · 창원 제외 시 112개)의 군현이 존재하는 것으로 환산된다. 그러나 이는 통일신라 및 고려 시기 행정구역이 세분된 결과가 누적된 수치로서 마립간기 단계의 실질적 지방지배 단위를 직접적으로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마립간기 신라의 지방통치는 이보다 적은 수의 거점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중국 『양서(梁書)』 신라전의 기록이다.⁸⁾ 해당 기록에는 신라의 행정 단위로 “6탁평 52읍류”가 언급되며, 이는 신라의 거점체계를 반영하는 중요한 자료로 이해된다. 일반적으로 ‘6탁평’은 왕경 주변의 6부, ‘52읍류’은 왕경 외곽의 52개 읍 단위 또는 행정성 · 촌 단위의 지방 거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주보돈 1996: 42), 이 기록은 마립간기 말기인 6세기 초의 신라 지방지배체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이수훈 2016: 99~100).

즉 마립간기 말기에 이르면 신라 지방에는 약 52개 내외의 행정적 성격을 지닌 성 · 촌 단위 거점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이해되며, 이러한 지방 거점의 실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고층의 위계와 수준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신라 고층 가운데 최고 위계를 보여주는 사례로는 창녕 교동 · 송현동고분군, 대구 달성고분군, 양산 북정동고분군, 경산 임당동 · 조영동고분군, 의성 금성산고분군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이들 고분군은 금 · 은제 착장장신구, 고급 용기류, 무구류 등 고위신분을 반영하는 부장품의 구성과 더불어 대형 고층의 축조 양상을 통해 지방지배층의 위상을

8) 그 읍속에 왕성을 건모라라 부르며 그 읍이 건모라의 안에 있는 것을 탁평이라 하고, 밖에 있는 것을 읍류이라 하니, 이것은 중국의 군현과 같은 말이다. 나라 안에는 6군데의 탁평과 52군데의 읍류가 있었다. : 其俗呼城曰健牟羅 其邑在內曰啄評 在外曰邑勒 亦中國之言郡縣也 國有六啄評 五十二邑勒 (양서 권 제54, 25장 앞쪽, 열전 48 제이동이 신라본기)

보여주는 핵심 사례로 평가된다.

신라에서 금·은제 착장장신구가 무덤 부장품으로 일반화되는 현상은 4세기 후엽부터 본격적으로 확인된다. 이 시기에는 사여를 매개로 한 중앙과 지방 간 관계도 점차 나타나기 시작하며, 그 종류는 금장성시구, 장식대도, 세환이식 등 비교적 단순한 구성으로 제한된다. 이후 5세기 중엽에 이르면 사여품의 범위가 확대되어 대금구, 관모, 천, 지환, 식리 등이 새롭게 등장한다. 특히 식리, 유리장식이 부착된 지환, 각목장식이 적용된 천 등은 금동제 비갑이나 청동용기와 함께 지방 고층에서 확인되는 최고 위계의 위신재로 이해되며, 당시 지방 지배층의 정치적·사회적 위상을 보여주는 핵심 표상물로 평가된다(고상혁 2024: 238~240).

다양한 착장장신구가 본격적으로 확대·도입되는 5세기 중엽에는 이른바 고층으로 분류되는 대형 고분들이 신라 영역 전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출현한다. 현재 발굴조사로 확인된 지방 최대 규모의 고분은 창녕 계성 2호분으로, 봉토 직경은 약 36m에 이른다. 이는 지방 고층의 상한 규모를 가늠하게 하는 사례로 이해된다. 봉토 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지방에서는 경주에서 확인되는 직경 40m 이상의 초대형 고층은 확인되지 않는다. 의성과 성주지역에도 직경 40m에 이르는 고층의 존재가 알려진 바 있으나, 창녕 계성 2호분의 사례에서 확인되듯 실제 발굴조사를 해본다면 기존 추정보다 작아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의성 및 성주지역의 고층 또한 실제 규모는 40m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통상적으로 지방 최고 위계로 평가되는 경산, 대구, 양산 일대의 최대형 고분은 봉토 직경이 약 22~30m 수준으로 확인되며, 이들 지역에서는 10m 후반~20m 초반 규모의 고분에서도 식리 등 최상위 위계의 착장장신구가 출토되었다. 이는 봉토 직경 약 20m 내외의 고분만으로도 신라 지방 사회에서 최고 위계를 충분히 표상할 수 있었음을 시사한다.

기존에는 약 26개소 정도의 고분군이 고층으로 분류되어 왔으나(김용성 1997: 220; 이희준 2007: 85), 봉토 규모를 고분군 별로 재검토한 결과 실제 고층(20m급 이상)이 존재하는 고분군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봉토 직경 20m를 기준으로 재산정할 경우, 마립간기 고층을 포함하는 고분군은 총 76개소에 이르며, 신라후기 지방에서는 이와 같은 규모의 고층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당 고분군은 대부분 신라전기, 즉 마립간기에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공간상 별도로 구분된 고분군이라 하더라도 산지나 하천 등 자연 지형에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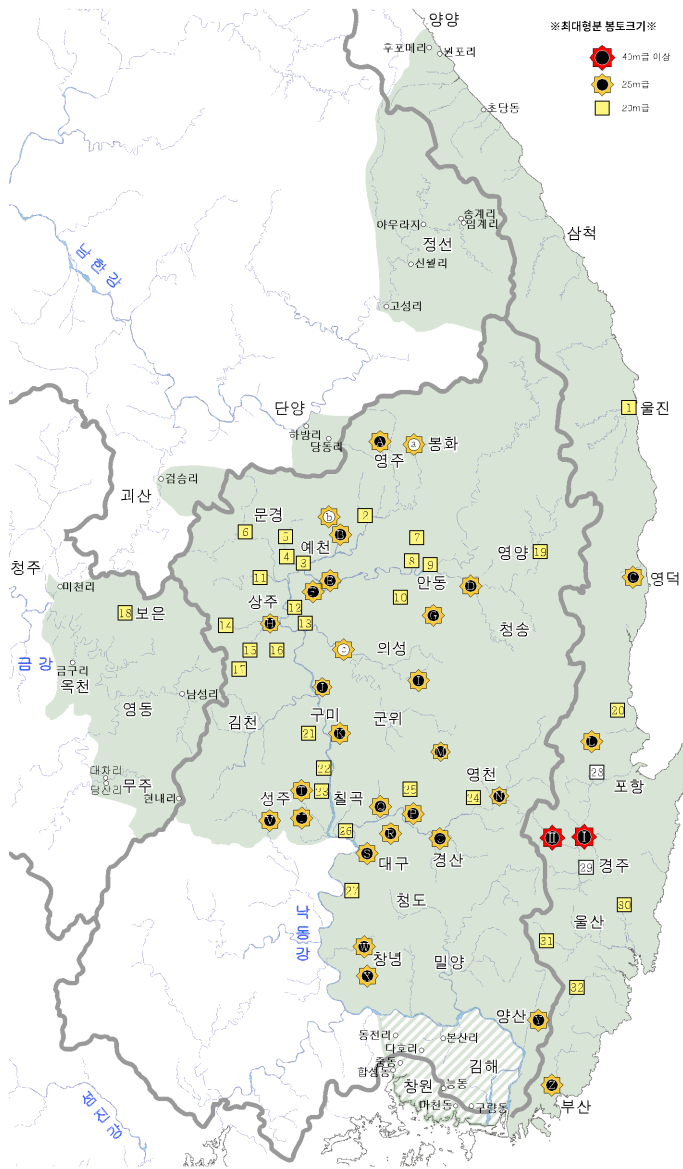
해 명확히 단절되지 않고 상호 가시권 내에 조성된 경우에는 동일 권역으로 재분류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적용하면 고총 관련 고분군은 61개소로 축소된다. 그중 봉화도촌리, 예천 성현리, 의성 미천리는 여타 고분군과 달리 복수의 고분이 군집을 이루지 못하고 한·두기의 대형분만이 조성되었는데⁹⁾ 봉분의 형태가 비상식적으로 타원형인 경우도 있어 고분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경주 이조리·용장리의 고총은 통일기 석실묘일 가능성이 크다. 그 경우 고총을 통해 확인되는 신라의 거점은 58개소인데 이를 표시한 것이 다음의 [그림 11]이다.

신라 지방 행정조직인 52읍락과 앞서 검토한 고총 분포를 결합해 보면, 경주 월성북고분군과 금척리고분군과 같은 초대형분이 존재하는 곳은 신라 중앙의 6탁평에 해당하는 핵심 권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월성북고분군은 복수의 부가 공동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며(장기명 2024), 금척리고분군은 모량부 수장층의 중심 고분군으로 특정되고 있다. 이 외에도 경주지역에는 다수의 20m급 고총이 분포하며, 안계리고분군 역시 그 대표 사례로서 6탁평 권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이희준 2007: 192~194; 최병현 2021: 94).

이러한 구분을 적용할 경우, 지방 거점으로 기능한 고총고분군은 총 55개소로 정리될 수 있다. 다만 일부 유적은 아직 발굴조사를 통해 직접 확인된 것이 아니므로 변동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25m급 고분은 고총고분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지만, 20m급의 경우에는 봉토 직경이 18m 내외에 그친 사례(상주 북장리, 상주 상현리, 대구 신용동)가 포함되어 있고, 일부는 별도의 지역단위로 묶일 수 있는 사례들도 확인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실제 고총고분군의 수는 52개소로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아직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므로 현 단계에서 이를 확정하지는 않겠다.

기록과 금석문을 통해 확인되는 신라 마립간기의 행정조직은 성·촌으로 지칭되는 지방통치 목적의 행정 단위를 기본 구조로 하며, 이들 가운데 3개의 성·촌이 군명 없이 형식적으로 군에 편제된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서 성과 촌의 구분은 성곽 시설의 존재 여부에 따른 공간적·기능적 구분에 해당하며(이수훈 2016: 101~109), 이를 곧바로 상하관계로 환원하기는 어렵다. 다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자연·지리적 조건과 정치·경제적 기반의 차이에 따라 각 지역 집단 간 일정한 위계적 차이나 영향력의 편차는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

9) 이들은 신라후기 석실묘일 가능성도 있지만 고총 축조가 끝나가는 시점 고총고분이 조성되기 시작하여 군집을 이루지 못하고 한·두기만이 위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5m급 이상 고분】

*중앙
I:경주 월성북고분군
II:경주(건천) 금척리

*지방
A:영주(순흥) 읍내리·내죽리
B:예천(대성) 대성리·백전리
C:영덕(영해) 발영리
D:안동(임하) 임하리
E:예천(지보) 도화리
F:의성(다인) 양서리·덕미리
G:의성(점곡) 송내리
H:상주 병풍산고분군
I:의성(금성) 금성산고분군
J:구미(해평) 낙산리
K:구미 황상동
L:포항(신광) 흥곡리·냉수리
M:영천(신녕) 화남리
N:영천 완산동
O:경산 임당동·조영동·부적리
P:대구(동구) 불로동
Q:대구(북구) 구암동
R:대구(서구·남구) 비산동·대명동
S:대구(화원) 성산리
T:성주(월향) 용각리
U:성주 성산리
V:성주(금수) 명천리
W:창녕 교동·송현동
X:창녕(계성) 계성리
Y:양산 북정동
Z:부산(연제) 연산동

a:봉화 도촌리
b:예천(용문) 성현리
c:의성(구천) 미천리

【20m급 고분】

1:울진 읍내리, 2:예천(감천) 포리, 3:예천(용궁) 향석리, 4:문경(영순) 왕태리, 5:문경(산양) 현리, 6:문경(마성) 신현리, 7:안동(서후) 저전리, 8:안동(동산) 회곡리·막곡리, 9:안동 태화동, 10:안동(일직) 조팔리, 11:상주(함창·이안) 신흥리·이안리, 12:상주(중동) 회상리, 13:상주(중동) 우물리, 14:상주(내서) 북장리, 15:상주(청리) 청하리·월로리·원장리, 16:상주(낙동) 유곡리, 17:상주(공성) 산현리, 18:보은 대야리, 19:영양(입암) 신구리, 20:포항(청하) 고현리, 21:구미 도량동, 22:칠곡(약목) 북성리, 23:칠곡(기산) 영리, 24:영천(청통) 대평리, 25:대구(북구) 신흥동, 26::대구(다사) 문산리·죽곡리, 27:대구(현풍·유가) 성하리·양리, 28:경주(강동) 안계리, 29:경주(내남) 이조리·용장리, 30:울산(북구) 중산동, 31:울산(상북) 천전리, 32:울산(웅촌) 대대리

[그림 11] 토기를 통해 본 신라(6세기 전엽)의 영역과 지방 거점(성·촌)

당시 지방 유력자의 위상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역역의 부담 수준(주보돈 2007: 157~158)과 중앙에서 파견된 군지휘관의 역할 및 권한 범위에 따라 크게 좌우되었다(남혜민 2024: 73~98). 이러한 구조 속에서 신라의 군 단위 역시 획일적이지 않고 기능과 위상에 따라 일정한 수준 차를 보였을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군 단위 최상위 고분군 간에도 위계적 차등이 존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동일한 군 내부에서는 유사한 위상을 가진 두 개 이상의 집단이 존재하기도 한다. 이는 인접한 두 유력집단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정치적 운영 방식(주보돈 1996: 34)의 실제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신라 지방에는 의성, 성주, 창녕과 같이 봉토 직경이 40m에 육박하는 대형 고총이 확인되는 지역도 존재한다. 이 가운데 의성은 후대에 최초의 소경이 설치된 지역이며, 창녕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지방 거점으로서 위상이 강화되어 이후 주로 승격된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다른 지방양식 토기 분포권과 비교할 때 보다 광역적인 분포 양상을 보이며, 단순한 지방 거점을 넘어 상위 단계의 중핵적 기능을 수행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마립간기 신라의 지방조직은 단일 구조가 아니라 최소 3단계 이상의 중층적 위계 구조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후대 행정구역 체계에서 상주(의성), 양주(창녕), 한주(성주)로 정리되는 핵심 지역들에 최고 위계의 고총이 집중적으로 축조된 점은, 이들 지역이 지방통치 구조 내에서도 상위 단계의 거점 기능을 수행했음을 시사한다.

한편 마립간기 신라의 거점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특징적인 현상이 확인된다. 첫째, 접경지역에는 상대적으로 거점이 거의 설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며, 둘째, 대다수의 고총고분이 낙동강 본류 주변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고분 규모 기준을 약 15m급으로 설정하고 주요 교통로를 기준으로 연결망을 구성해 보면(그림 12)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즉, 신라의 지방 거점은 단순한 균등 분포가 아니라 핵심 하천 교통축을 중심으로 선택적으로 배치된 구조를 보이며, 접경지보다는 내륙 수운망을 따라 집중되는 특징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12]에서 확인되듯이 신라 영역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성격을 가진 김해 일대와 그 주변, 그리고 금강·한강 유역에서는 고총으로 대표되는 지방 거점이 뚜렷하게 형성되지 않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신라의 지방통치 방식과 연관하여 해석할 수 있다(주보돈 1996: 29~31).

즉 해당 지역들은 형식적인 공납을 통해 신라에 신속된 상태였거나, 기존 유력세

력이 중앙에 의해 재편되었거나, 유력집단이 중앙으로 이주 되었거나, 혹은 군사적 요충지로서 중앙에서 파견된 군관이 직접 상주하는 방식으로 통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중 금관가야의 문화적 기반 위에서 일정한 정체성이 유지된 김해의 경우에는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비교적 이른 시점부터 신라의 영역에 편입되었으나 고층이 축조되지 못한 밀양과 청도는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유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한편 고구려와의 접경에 위치한 금강 및 남한강 일대와 동해안 북부 일대는 군사적 성격이 강한 마지막 유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 지역에서 고층이 축조되지 않은 배경에는 해당 공간이 신라의 ‘지방(민)’이라기보다 ‘피복속지(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에 따른 정치적 거리감과 적대적 인식이 중앙 지배층 내부에 존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주보돈 1996: 29). 특히 동해안 북부와 금강·남한강 일대는 마한 또는 예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던 지역으로, 진한계 소국들과도 장기간 다른 문화권을 형성해 온 탓에 신라의 지방 질서에 편입되기까지 상당한 시차가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고층이 축조되는 지역은 신라의 지방민으로서의 의식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용된 영역으로, 5세기 후반 이후에는 중앙에서 도사(道使)가 파견되고, 해당 행정 성·촌의 촌간에게 외위(外位)가 수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주보돈 1996: 46). 또한 이들 지역은 토산물 공납을 넘어 성곽 축조를 위한 역역이 부과되는 등 보다 직접적인 통치 행위가 적용된 공간으로 이해된다.

반면 고층이 확인되지 않는 지역은 다양한 통제장치를 통해 간접 지배가 이루어진 영역으로, 신라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하는 수준의 관리가 중심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주보돈 1996: 34). 이처럼 마립간기 신라의 지방지배는 간접지배와 초보적 직접지배가 병존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결국 마립간기 신라의 지방지배는 일률적인 방식으로 운영된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정치적·사회적 조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전개된 구조였다고 할 수 있다.

V. 맺음말

이번 연구에서는 신라양식 토기의 분포를 통해 마립간기 신라의 지방지배구조와 연결망의 성격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중앙의 표준화된 의례 체계가 지방으로 확산

하는 과정에서 토기 생산·고총 축조·교통망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다층적 네트워크 기반의 차등적 통합 정치체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아울러 신라 영역 인식 및 고총 활용 기준에 대한 새로운 해석 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라양식 토기는 4세기 중엽부터 6세기 전엽에 걸쳐 중앙의 의례 및 생산 규범이 지방으로 확산하는 과정을 반영하는 핵심 물질 자료로 이해된다. 분포 양상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낙동강 하류에서 시작하여 상류, 중류 및 나아가 소백산맥 넘어 남한강·금강 유역으로 순차적으로 확산하는 단계적 전개를 보인다.

특히 5세기 중엽은 낙동강 본류의 통합적 지배가 확립되는 전환기로, 이후 수운을 중심으로 한 교통망 재편과 함께 지방 거점의 형성, 고총 축조, 토기 생산체계의 표준화가 병행되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지방은 중앙양식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지역 전통과 결합한 다양한 변형양식을 지속해서 생산하며 선택적 통합의 양상을 보여준다.

고총 분포 분석에 따르면 마립간기 신라는 단일 중심 체제가 아닌 다층적 위계를 지닌 광역정치체로 이해되며, 『양서』의 “6탁평 52읍록”으로 표현된 지방 52개의 지방 거점 체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직경 20m 이상의 고총이 조성된 고분군의 수가 이와 대체로 부합함이 확인되어, 지방 거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었다. 아울러 지방지배는 다양한 방식이 차등적으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마립간기 신라의 지방지배는 토기 생산, 고총 축조, 의례 체계, 교통망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복합 네트워크 구조로 이해되며, 단일 체제가 아닌 다층적 통합 체제로 규정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구조를 토기 분포라는 고고학 자료를 중심으로 연결망의 관점에서 재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고총과 생산체계, 교통망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지방 거점의 위계 구조를 실증적으로 추정하였다. 나아가 문헌 자료와 고고학 자료를 종합적으로 결합하여 신라 마립간기 지방조직을 물질 문화의 표준화와 의례 체계 확산을 통한 정치 통합 과정으로 재해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

투고일 2026. 4. 29 | 심사완료일 2026. 5. 22 | 게재확정일 2026. 5. 27

- 고상혁, 2022, 「신라토기 경주양식 분포권과 교통로」, 『한국상고사학보』117, 한국상고사학회.
- _____, 2023, 「4~6세기 영남지역 저상부장묘(低床副葬墓)의 고고학적 함의」, 『영남고고학』 97, 영남고고학회.
- _____, 2024, 「신라양식 토기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_____, 2026, 「신라국가의 기념물로서 신라양식 토기의 출현과 분포 배경: 사단각고배를 중심으로」, 『한국상고사학보』132, 한국상고사학회.
- 김대환, 2012, 「신라 장경호 부장 정형과 신라 토기의 확산」, 『中央考古研究』11, 중앙문화재연구원.
- 김두철, 2014, 「신라·가야의 경계로서 경주와 부산」, 『嶺南考古學』70, 嶺南考古學會.
- 김용성, 1997, 『대구·경산지역 고총고분의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5, 『신라 고분 고고학의 탐색』, 진인진.
- _____, 2016, 「마립간 시기Ⅱ-지방-」,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자료집3, 경상북도.
- 김주용, 2007, 『昌原地域 古墳의 推移와 性格』,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학위논문.
- 김창석, 2016, 「신라의 산업과 경제」,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연구총서 10, 경상북도.
- 김태식·조효식 외, 2008, 『한국 고대 사국의 국경선』, 서경문화사.
- 남혜민, 2024, 『麻立干期 신라의 지방통치 강화 과정』,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성현, 2010, 『新羅의 據點城 축조와 지방 제도의 정비 과정』, 서울대학교 文學博士學位論文.
- 李盛周, 2009, 「新羅·加耶 土器樣式의 生成」, 『韓國考古學報』72, 韓國考古學會.
- 이성주, 2012, 「마을(村落)과 都市에 관한 考古學의 論議」, 『고고학』11-2, 중부고고학회.
- _____, 2020, 「신라토기의 성립과 부장토기의 선택」, 『동북아 부장토기의 형성과 전개』,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 이수훈, 2016, 「신라의 체제 정비와 영토 확장」,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연구총서3, 경상북도.
- 李元太, 2022, 『嶺南地域 原三國時代 土器 研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考古美術史學科 博士學位論文.
- 이현상, 2009, 「金工品으로 본 5~6世紀 昌寧地域의 政治的 動向 -金屬製 裝身具의 分析을 중심으로-」, 『한국 고대사 속의 창녕』, 창녕군
- 이희준, 2005, 「4-5세기 창녕 지역 정치체제의 읍락구성과 동향」, 『嶺南考古學』37, 嶺南考古學會.
- _____, 2007, 『신라고고학연구』, 사회평론아카데미.
- 장기명, 2024, 「월성북고분군의 변천과 마립간기 6부의 내부 조직」, 『한국고고학보』132, 한국고고학회.
- 주보돈, 1996, 「敵立千時代 新羅의 地方統治」, 『嶺南考古學』19, 嶺南考古學會.
- _____, 2007, 『신라 지방통치체제의 정비과정과 촌락』, 신서원.
- _____, 2016, 「신라의 건국과 성장」,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연구총서2, 경상북도.
- 최병현, 2021, 『신라 6부의 고분 연구』, 사회평론아카데미.
- _____, 2022, 『신라토기 연구』, 사회평론아카데미.
- 高橋美久二, 1998, 「古代の交通」, 『古代史の論點』3:都市と工業と流通, 小學館.

Territory and Local Governance of Silla during the Maripgan Period

Ko, Sang-Hyeok (Researcher, Gyeongju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Silla-style pottery is a key archaeological indicator that most clearly reflects the identity of the Silla state, and its continuous distribution range can be understood as corresponding to the extent of Silla's territory. Based on this, the western and northern boundaries of Silla during the Maripgan period are identified as a line connecting Changwon – Changnyeong – Daegu – Seongju – Muju – Yeongdong – Okcheon – Cheongwon – Goesan – Danyang – Jeongseon – Yangyang.

The High-mound Tomb found within Silla's territory were symbolic monuments of the leaders of local political entities that maintained close political ties with the central authority during the Maripgan period, and they were constructed according to strict regulations. Therefore, tombs with a diameter of over 20 meters, in which the highest-grade prestige goods were buried in provincial Silla, can be regarded as archaeological indicators of administrative units such as seong(城) and chon(村). Their total number is 51, which appears to correspond to the 52 local administrative units recorded as “eupneuk(邑勒)” in the Chinese text Liangshu(梁書), thus reflecting the loc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of Silla in the early 6th century.

High-mound tombs are not evenly distributed. Regions where such tombs were built likely experienced substantial direct governance, including the stationing of local officials, the granting of woewui(外位), and the mobilization of labor. In contrast, regions without such tombs were governed indirectly through various control

mechanisms. Thus, governance in Silla's provinces was carried out in a differentiated manner depending on local conditions.

In this way, the distribution of Silla-style pottery and High-mound Tombs allows us to understand the territorial extent and local governance structure of Silla during the Maripgan period.

Key words : Silla, Maripgan, pottery, High-mound Tomb, Local Organization